

# 기업 맞춤형 재생에너지 공급 추진

###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현장중심 설명회 열고 기업 참여 독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최근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험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설명회'를 가졌다고 지난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관리 주체인 새만금개발청과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했으며, RE100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가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현장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중심의 기업맞춤형 재생에너지 공급사업 추진방향 등을 소개하

고, RE100 이행에 관한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청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공장 지붕 등 산단 내부의 태양광 발전 방안, 고효율에너지 설비 설치 같은 기업 실정에 맞는 RE100 이행 및 탄소저감 방안을 안내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재생에너지 공급 전용 전력망 구축 등 인프라 지원에 관하여 설명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문기업 중심의 SCC(특수목적법인) 사업 구성 등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 구조와 세부 추진

일정, 예상 공급 단가 등 주요 내용과 RE100 관심기업의 사업 참여방안 등을 안내했다.

특히, 기업대상의 맞춤형 1:1 컨설팅을 통해 재생에너지 안정성, 기업 개별 실정에 따른 공급용량·계획 등을 안내하여 수요기업의 공급한 부분을 해소하는 등 서로 간에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

새만금 국가시험산업단지 중 5~6공구를 조성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기반 시설과 스마트기술을 통한 입주기업의 에너지 효율화·탄소 저감을 지원 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험산업단지로 지정하였으며, 새만금청에서는 스마트

그린산단 내 온실가스(CO2) 27% 감축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국가시험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험산업단지로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물론 지역성장 견인과 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험산업단지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용)은 지난날 28 '레전드 50+'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특장차 제조업체 ㈜진우에스엠씨(대표 이준호)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상용·특장차 분야 참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조업체 방문·생산 현장 살펴

### 전북중소기업청, '레전드 50+' 참여기업과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용)은 지난날 28 '레전드 50+'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특장차 제조업체 (주)진우에스엠씨(대표 이준호)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상용·특장차 분야 참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각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정책자금 및 수출지원 등에 약 2800억을 투입할 예정이며 전북지역은 '특수목적용 기능형 기계부품' 관련기업 육성에 약 3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지역은 친환경 중심 특수목적용 기계부품 기업 혁신전환과 성장지원으로 24년 예산 규모는 106개사에 300억원이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지역의 '레전드 5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는 106개 기업들 중 먼저 진우에스엠씨, 벽진 등 상용·특장차 분야 관련기업들과 프로젝트 및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건의·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벽진(주) 백승화 대표는 뿌리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에 대한 채용 확대와 지속 고용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계획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북도의 모집 공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전북중기청 인태용 청장은 "레전드 50+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애로 등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 참여기업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며 "또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발판삼아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전북환경청, 장마 대비 하천변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7월부터 관내 14개 시·군 주요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2024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국고보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국고보조 사업은 매년 14개 시·군에 총 11~13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고자 2011년부터 지속 추진 해오고 있다.

특히, 2021~2023년 평균 약 4,3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재활용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했으며, 올해에도 최근 교부된 마진 11억을 활용하여 하천·하구에 방치된 쓰레기 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청은 정화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 7월간 사업비의 목적에 따른 집행, 쓰레기의 실제 수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태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지난 27일에 남원시 요천 일원에서 쓰레기 정화 행사를 실시,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북환경청, 남원시청 직원 3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김욱기 기자

## 바이오진흥원, 도내 우수 의료기기 기업 현장 방문

### 기업 현장으로 청취·의견 수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의 농생명바이오 기업과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날 28일에는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의료기기 기업 (주)풍림파마텍의 자동화 제조시설을 견학하는 등 전북의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우수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주)풍림파마텍(대표 조희민)은 1979년 고려화공약품회사 설립 후 1999년에 주변의 민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지금의 풍림파마텍인 (주)풍림파마텍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조 대표의 특집있는 의지와 열의로 주사침의 C형중, FDA인증 등을 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의 농생명바이오 기업과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레오 거쳐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인 '최소잔여형 백신 주사기(LDV)'를 개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그해 한국판 뉴딜에 선정되는 등 전북자치도의 우수 기업으로 우뚝 성장했다.

이에 바이오진흥원은 (주)풍림파마텍

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역량과 글로벌 시장경쟁력 분석 등을 지원(전북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하고 있다.

조희민 대표는 "정부차원에서 바이오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특히 전북도에서도 이에 맞춰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풍림파마텍도 계속해서 전북자치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바이오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바이오기업의 성장 및 애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전북자치도내 바이오기업이 한껏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전북개발공사, 건설현장 찾아가는 가상현실 안전교육 실시

전북개발공사는 지난날 27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김제 도시재생뉴딜 중심거점시설 건설현장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콘텐트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으로 실시 되었으며, 안전사고 발생상황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며 교육대상자에게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교육의 주요 내용은 △사다리

추락 △순간의 선택 △이동식 비계 위 작업 추락 △트러버리 붕괴 등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를 가상현실로 체험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기존 이론 위주 안전교육을 탈피한 가상현실(VR)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찾아가는 가상현실 안전 교육으로 근로자들의 위기 대처



전북개발공사 건설현장 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콘텐트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 한전 군산지사, 호국보훈의 달 맞아 감사물품 전달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는 지난날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보훈대상자에게 감사 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서부보훈지청을 통해 선정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가족 어르신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지사 직원들이 유공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여름맞이 침구류 세트와 쌀 1포대를 전달하고, 전기 사용 관련 불편 사항은 없는지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민모 지사장은 "호국영웅분들의



승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지금의 우리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